

계룡인가족



裕林

2017 Summer Vol.134

삶을 디자인하다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렀던 시대는 지났다. 소비자가 제품 소비의 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재창조하는 것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대중에게 친숙한 방식이 되었다. 이렇게 제품을 창조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를 '크리슈머[Creative(창조적)+Consumer(소비자)=Cresumer]', '모디슈머[Modify(수정하다)+Consumer(소비자)=Modisumer]라고 부른다.

한편, 이제는 기업들도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맞춤형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계통건설에서도 입주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실천하는 뉴스테이 건설을 추진 중이다.

창조적인 소비자, 융통적인 기업

크리슈머, 모디슈머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라면이다. 짜장 라면과 맵고 얼큰한 라면을 함께 조리하는 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한편, 소비자들은 다양한 조합으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냈다.

편의점의 여러 제품을 조합하는 것도 SNS상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라면에 치즈를 첨가하거나, 떡볶이에 삼각김밥을 비벼 먹기도 한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슈머, 모디슈머들은 화장품 등에서도 자신만의 제품을 재창조한다. 각자의 피부 상태나 취향이 다른 만큼, 각자에게 필요한 화장품을 직접 조합해 사용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소비를 추구하고 있으며 각자만의 소비 방식은 인터넷과 SNS의 물살을 타고 퍼져 나가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 방식도 예전과는 다르게 진화했다. 소비자의 요구를 단순히 파악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일본의 츠타야 서점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샵으로서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다. 서점의 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방법의 큐레이션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서점 내에 카페가 위치하며 어린이 서적 코너에는 어린이 용품을, 음식 서적 코너에는 식재료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뷰티 서적 코너에 네일샵을 두기도 한다. 책의 유형에 따른 분류가 아닌, 소비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에 따른 공간 구성으로 발상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 좀 더 융통성 있는 자세로 소비자의 삶을 생각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계통건설 뉴스테이, 입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비자의 입장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방식은 단순한 제품 생산, 샵 구성뿐 아니라 아파트 건설 분야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계통건설에서 공급하는 뉴스테이 또한 소비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서비스 공급에 따른 주거공간 구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공간이었다면, 계통건설의 뉴스테이는 입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거주생활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이를 위해 계통건설은 먼저 뉴스테이 주 수요층인 30~40대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파악했다. 30대 연령층은 주로 보육시설, 보육 돌봄 서비스 등 자녀 보육 서비스를 희망하고 40대 연령층은 주로 피트니스센터 이용 등 건강관련 서비스를 희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계통건설은 많은 이의 요구를 파악해 육아·보육 서비스, 교육지

리슈빌 더 스테이만의 주거 서비스



원 서비스, 생활·편의 서비스, 건강·여가 서비스, 공동체 활동지원 서비스, 관리비 절감 서비스 등의 주거 서비스를 계획한다. 단순히 수요층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실례로, 계룡건설의 뉴스테이 입주민 중 워킹맘과 빗벌이 부부는 육아·보육 서비스를 통해 아이를 맡기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교육지원 서비스로 입주민은 업무나 가사에서 벗어나 자기계발과 취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단순히 하드웨어로서 존재했던 그간의 아파트와는 달리 계룡건설의 뉴스테이는 더 행복한 삶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공동체 활동지원 서비스가 눈에 띈다. 계룡건설의 뉴스테이는 일반 아파트에서 이웃을 만들기 어려웠던 면을 해소하고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마을로 만드는 활동을 지원한다. 이웃과 함께 풍요로워지는 삶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계룡건설의 뉴스테이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라이프스타일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은 입주와 동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진다. 이를 위해 계룡건설은 단지 내에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입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예정이다.

하나의 제품 이전에 삶이 있다. 각각의 제품은 삶과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제품이든 삶 속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때로는 삶을 제안하기도 한다. 뉴스테이의 주거 서비스에서 보듯, 계룡건설은 삶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계룡건설의 행보에는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업 철학이 담겨 있다. 🌐

당신의 숲에서 행복했습니다 총청의 거목 故 이인구 명예회장을 기억하다

‘이인구 명예회장님, 당신의 숲에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5월 17일 계룡건설 본사 사옥에서 이루어진 영결식에는 비통함과 함께

이인구 명예회장의 뜻을 되새기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자리에 참석하신 이들은 이인구 명예회장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바탕으로 한

기업경영과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한 국정과 사회공헌 활동에 존경을 표했다.

넉넉한 숲, 유림(裕林)이라는 호처럼 이인구 명예회장은

대전 총청권을 비롯해 대한민국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일로매진(一路邁進) 정신으로 계룡그룹을 일구다



이인구 명예회장은 1931년, 대전 동구 효평마을에서 출생했다. 목은 이색 선생의 20대손인 이인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리더십, 애국심을 물려받아 어려서부터 충명함을 인정받았다. 일제 강점기 산촌의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뛰어난 자질로 충청권 최고의 명문 대전중고등학교에 1946년, 수석으로 입학했다.

5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 6.25전쟁이 발발했고, 이인구 명예회장은 1950년 7월, 부모의 걱정을 뒤로한 채 학도병에 자원 입대했다.

“국가의 개념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나 이 든 몸이지만 전쟁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의 국가관입니다.”

이인구 명예회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국가관을 밝힌 적이 있다. ‘오로지 구국’. 1950년 당시 학도병에 자원 입대한 것도 그의 국가관 때문이었다.

최전선에서 전투에 임하던 이인구 명예회장은 미군 고문관의 통역병으로 근무하던 중, 18세의 어린 나이로 공병 소위로 임관했다. 그리고 1951년에 최연소 장교로 유학단에 선발됐다. 미육군 고등 군사반을 졸업한 후에도 공병 장교

로서 국가 방위와 국토 재건 사업에 동참했다.

이인구 명예회장이 계룡건설 합자회사를 인수한 때는 1970년 1월이다. 창립 초기에 자본과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쌓아 갔다. 1970년에는 우리나라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개통의 주역으로 국토 재건 사업에 동참했다.

이인구 명예회장은 1978년 제60회 전국체전을 개최할 대전 공설운동장 준공을 계기로 계룡건설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 공설운동장을 공사하던 회사가 도산을 맞는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계룡건설이 공사를 맡은 것이다. 이인구 명예회장의 열정을 앞세워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해 공설운동장을 준공했다. 이를 시작으로 둔산 신시가지 조성, 충청은행 전산센터 건설, 대전 월드컵경기장 등을 건설하며 계룡건설은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룩했다.

현재 계룡건설은 1970년 출범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2010년 1월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았으며, 현재는 KR산업, 계룡산업, KR유통, 계룡장학재단, KR스포츠 등 계열사 포함 2천6백여 명의 직원을 둔 매출 2조 원대 계룡그룹으로 성장했다.





- 국회 상임위 활동(15대 국회) ▲
- 광개토대왕비 복제비 건립 ▶
- 계룡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

1988년, 이인구 명예회장은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와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결단을 내린다. 김종필 총재의 부름으로 정계에 진출한 것이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내 윤종선 여사도, 이인구 명예회장의 진심을 받아들여 선거 운동에 힘썼다. 그 결과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됐다. 이후 19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도 재선돼 특유의 돌파력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국정 수행 능력을 발휘했다.

1998년 국정감사 때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정무위원회 베스트의원으로 뽑혔고, 여야의원들이 자체선정한 '98국감 20인'에도 들었다. 특히 1998년 6월 한국유권자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제15대 의정활동 평가에서 299명의 국회의원중 10명 안에 들어 활약상을 확실히 인정받았다.

국가와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인구 명예회장의 가치관은 계룡장학재단 설립으로 이어졌다. 1992년, 이인구 명예회장은 지역의 인재를 지원하는 계룡장학재단을 설립해 현재까지 1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54억여 원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광개토대왕비 복제비 건립 사업, 삼학사비 중건 사업, 일본 백제문화유적탐사 사업, 백야 김좌진 장군 추모 사업, 독도 우리 땅 밟기 운동, 유림경로효친대상 제정, 유림공원사생대회 개최 등 다양한 문화 역사 관련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인구 명예회장은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지요. 돈을 못 벌면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번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는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인구 명예회장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빛을 발했다. 이 명예회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일본에서 귀국해 복구에 앞장섰다. 복구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부담하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환경 전문가를 초청했다. 그러한 노력으로 기름 유출 지역이 7개월 만에 예전 모습을 되찾았다.

2007년은 이인구 명예회장이 희수를 맞이한 해로 이를 기념해 이인구 명예회장은 사비 100억 원을 출연해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했다. 우리나라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유성구 봉명동의 유림공원이다. 공원 조성 이후 지금까지 유림공원은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대전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이인구 명예회장은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 창단,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 희망나눔캠페인 후원, 메르스 대책 후원, 와병중인 예비역 위문금 후원, 유림뜰 조성·기부 등으로 공익실현에 앞장서 왔다.

▼ 2006년 7월 14일 유림효친대상1회

▼ 2009년 6월 23일 유림공원 기자간담회



넉넉한 숲처럼 너그러웠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촌음을 아끼며 달리면서 생각하고 뛰면서 일해 왔습니다. 술한 과오도 있었고, 술한 영광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도 비록 일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시간 까지 일벌레가 될 것입니다.”

이인구 명예회장은 2007년, 회고록 <일하는 보람으로 산다>를 발행했고 2015년에 추록을 발간한 바 있다. 회고록에서 이 명예회장은 위와 같이 고백했다. ‘일하는 보람으로 산다’라는 회고록 제목처럼, 이인구 명예회장은 기업경영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에 매진하며 평생을 달려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인구 명예회장은 수많은 공적을 인정받으며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6.25 전쟁의 전공으로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고, 나라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한국건축대상, 대전시민대상 등 300여 개 이상의 상과 감사패 수상이라는 뜻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이인구 명예회장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발자취는 ‘유림(裕林)’이라는 호로 축약할 수 있다. 넉넉한 숲처럼 넓은 마음으로 계룡그룹을 경영하고 지역사회를 돌본 이인구 명예회장의 삶은,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이어질 것이다.

“산간벽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숲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림으로 호를 지었고 넉넉한 숲이라는 뜻입니다. 원시림처럼 넓고 우거진 숲은 내 생리에 맞지 않고 그저 구색이 잘 갖추어진 넉넉한 숲이 내 생리에 맞습니다. 나의 인생도 넘칠 정도로 많고 크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고 넉넉할 정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나의 인심도, 나의 기업도 그랬으면 합니다.” – 이인구 명예회장의 회고록 <일하는 보람으로 산다> 🌐





故 이인구 명예회장 약력

▶ 학력사항

- 1945 대전동명초등학교 졸업 (27회)
- 1946-1952 대전중고등학교 졸업 (31회)
- 1952 미국 육군공병학교 고등육사반 과정 졸업
- 1964 충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
- 1986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최고 관리자과정 제2기)
- 1994 충남대학교 명예법학박사
- 2003 대전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 2003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철학박사
- 2004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국립극동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 2015 한밭대학교 명예공학박사

▶ 경력사항

- 1970-1995 계룡건설산업(주) 회장
- 1975-1981 대전·충남 핸드볼협회 회장, 대전·충남 궁도협회 회장, 대전·충남 탁구협회 회장, 대전·충남 수영연맹 회장
- 1976-1982 재향군인회 충남지회 지회장
- 1978-1981 대전·충남 사격연맹 회장
- 1982-1988 대전상공회의소 회장(11·12대), 대전지역노사협의회 회장, 충청남도 한·일 친선협회 회장
- 1985-1993 충남대학교 총동창회 회장(18-21대)
- 1988-1992 제13대 국회의원(신민주공화당 대덕, 연기)
- 1988-1990 국회건설위원회 위원
- 1988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신민주공화당 대전·충남 지부 위원장, 신민주공화당 당무위원, 대전생명보험(주) 설립추진위원장
- 1990-1992 93대전엑스포 특별위원회 위원
- 1991-1992 국회상공위원회 위원
- 1991-1992 민주자유당 당무위원
- 1991 대전생명보험(주) 명예회장(現 미래에셋 흡수합병)
- 1992-2017 계룡장학재단 이사장
- 1993-1996 대한민국 헌정회 대전지부 회장
- 1995-2000 자유민주연합 대덕구 지구당 위원장
- 1995-1997 자유민주연합 대전시지부 위원장
- 1995-2000 자유민주연합 당무위원
- 1996-2001 계룡건설산업(주) 명예회장
- 1996-2000 제15대 국회의원 (한·일 의원연맹위원, 한·쿠웨이트의원 협회 회장, 한·중 의원협회 회원, 한·인도네시아 의원협회 이사, 한국동관참전의원 친목회 부위원장, 국회장각회 회원)

- 1996-199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1996-2000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모임 회장
- 1996-1998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장
- 1996-2005 (주)대전프로축구단 명예회장
- 1996 96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
- 1997 한보사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1997 97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
- 1998 98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
- 1998-2000 국회정무위원회 위원
- 1998-2000 자유민주연합 부총재
- 2001-2017 계룡건설산업(주) 명예회장
- 2002-2017 대전대학교 객원교수
- 2002-2017 KR산업 명예회장
- 2003 반부패 국회의원 포럼 고문
- 2003 한국학중앙연구원 발전후원회장
- 2007-2008 충청남도 유류사고대책위 자문위원
- 2008 '충청남도지' 편찬위원
- 2008-2009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범도민지원협의회 회장
- 2009-2010 2010 세계대백제전 범도민지원협의회 회장
- 2010 월남(月南) 이상재생생 기념사업회 고문
- 2010-2011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고문위원
- 2011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고문

▶ 상훈사항

- 1952 화랑 무공훈장
- 1978 국민훈장 동백장
- 1979 산업포장
- 1980 대통령 표창(수해복구)
- 1986 국무총리 표창(아시안게임)
- 1992 한국건축대상(한국건축가협회)
- 1998 새마을금고 대상
- 1999 산업포장
- 2000 안전경영대상
- 2000 동탑산업훈장
- 2000 석탑산업훈장
- 2002 대통령표창
- 2003 기업경영대상
- 2005 제29회 월남장 수상
- 2007 자랑스런 대전인상
- 2009 대전시민대상
- 2010 자랑스런 충청인상
- 2010 산업포장
- 2010 40년이상 향토기업 감사패 외 300여 개

리그 우승을 향한 도전은 올해도 계속된다 계룡건설야구단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계룡건설야구단은 올해 중구MK리그 경기를 치르고 있다.
올해로 창단 2년 차인 계룡건설야구단은 경기를 위해 틈틈이 모여 호흡을 맞추며,
야구 실력은 물론 동료에 대한 애정까지 쌓아가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계룡건설야구단이 대전고등학교 야구경기장에 모였다. 당당히 회사 이름을 가슴에 새긴 선수들은 빠르게 몸을 풀고 경기를 위한 준비에 집중했다. 이날은 계룡건설야구단이 중구MK리그 경기에 출전하는 날이었다.

지난 2015년 9월 창단한 계룡건설야구단은 올해로 두 번째 리그를 치르고 있다. 야구단에는 현재 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직급, 나이, 직종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모여 야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다.

그라운드에서는 모두가 선수라는 생각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코치하고 함께 연습에 매진해 언제나 훈훈한 분위기를 만든다. 선수들은 격주로 연습경기와 정식경기를 치르며 호흡을 맞춘다. 작년에는 창단 첫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16개 팀 중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야구단 감독을 맡은 주택개발부 박근명 감독은 더 많은 직원이 계룡건설야구단에서 활동하기를 바란다.

“야구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본기는 경기를 하면서 배우면 되니까요. 더 많은 계룡가족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격식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계룡건설야구단에 많이 참여하세요.”

이날 경기에서는 창단멤버와 신입멤버 모두 호흡이 척척 맞았다. 그 덕에 계룡건설 야구단은 상대팀인 동양에스틱을 16:11로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계룡건설야구단은 앞으로도 리그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새로 태어난 구니C.C

모두를 위한 골프장이 되다

구니C.C를 운영하는 KR스포츠가 계룡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 넓은 코스를 자랑하는 구니C.C는 운영방식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됐다. KR스포츠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기장을 개보수해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치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450

홈페이지 www.gunicc.co.kr (일주일 전 인터넷 예약)

대표전화 054.380.0000 예약실 054.380.0007



지난 2016년 12월 13일 계룡그룹 KR스포츠의 골프장 구니C.C가 문을 열었다. 구니C.C는 2006년 계룡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골프장을 인수해서 운영방식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해 누구나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 6.5km 이상의 인터내셔널 코스를 가지고 있는 구니C.C는 정규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넓은 대지에 18개 홀을 가지고 있어 골프를 즐기는 사람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곳이다. 이는 다른 골프장과 견주어 봤을 때 눈에 띄는 규모다. KR스포츠 정하석 대표는 “구니C.C의 장점을 살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기장을 개보수해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창출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우수한 자연 경관도 구니C.C만의 자랑이다. 골프장 구석구석에 다양한 조경 시설을 디자인해 다채로운 골프 코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라운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이용자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골프를 즐기도록 특별히 신경 썼다. KR스포츠 강전호 차장은 구니C.C가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 전망한다.

“앞으로도 구니C.C는 훌륭한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계룡그룹의 일원이 된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어나갈 구니C.C를 기대해주세요.”



KR산업

청도 새마을 휴게소 운영 시작

KR산업은 지난 3월 9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발주한 청도 새마을 휴게소 임대운영사업을 수주했다. 리모델링을 거친 후 운영을 시작할 청도 새마을 휴게소는 연간 매출액이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푸드코트



▲ 휴게소 상하행 조감도

KR산업은 지난 3월 9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발주한 청도 새마을휴게소 임대운영사업을 수주했다.

경북 청도에 위치한 새마을 휴게소는 오는 7월부터 KR산업이 운영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방향 총 대지면적 3만5천 평에 건축면적 4천 평, 주차대수는 622대 규모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연간 매출액은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방향 휴게소는 '즐길거리가 가득한 휴게소'라는 개념으로 리모델링해 패밀리존과 커뮤니티 플라자 등으로 구성되며, 부산방향 휴게소는 '일상의 활력을 충전하는 휴게소'라는 개념으로 푸드스트리트, 와인터널 등으로 구성된다.

청도 새마을 휴게소는 6월부터 실시설계 진행 및 시설 인수인계에 들어가게 되며 오는 7월 1일부로 KR산업에서 운영하게 된다.🌀



▲ 휴게소 전경



▲ 놀음심터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인다

EBS 디지털 통합사옥 건립공사 현장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국민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장비를 구축한 신사옥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 일산에 자리한 EBS 디지털 통합사옥 건립공사 현장은 계룡 건설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방송국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O2부지

대지면적 14,836.00㎡

공사기간 2015.05 ~ 2017.02

주요용도 방송통신시설(방송국)

건축규모 지상 20층, 지하 3층



멀티오디오실



TV 스튜디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다

EBS 디지털 통합사옥 건립공사 사업은 계룡건설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방송국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상 20층 규모인 EBS 디지털 통합사옥은 1층에서 9층까지 방송층으로 사용되고, 10층에서 20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된다. 방송층에는 TV 스튜디오와 FM 스튜디오, 멀티오디오실, 3D 촬영장인 ENG크로마실, 인터넷 강의를 위한 이러닝실, 단체연습실, 편집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방송국은 일반건물과 달리 공간마다 특별한 용도가 있어, 각 공간을 철저히 밀실로 만들고 다른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옆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소음을 막아야 한다. 이에 EBS 디지털 통합사옥 현장 직원들은 다양한 공법을 사용해 각 공간이 특별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직원들은 방송국 시설 소음 측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뜬바닥 구조로 방송국 바닥과 벽면을 시공했다. 소음을 2중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3D 촬영실인 ENG크로마실 벽면을 구형으로 구현해 질 좋은 3D 제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EBS 디지털 통합사옥 현장을 이끈 이상민 소장은 이번 현장이 방송안전화 공사와 방송인프라 공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현장이었다고 말한다.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사업이다보니 부담도 되었고 공사를 진행하며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해 준 덕분에 공사 기간 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도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있어 가능했다

“직원들이 믿고 따라준 덕에 공정에 맞춰 사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방송국은 까다로운 작업이 많은데요.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24시간 동안 시간을 잘 분배해 작업을 진행한 덕에 사업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최선을 다해준 덕분입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노력이 가장 빛났다. 25명의 직원이 노력한 덕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다. 2014년 7월 착공한 EBS 디지털 통합사옥 현장은 2017년 2월 12일 법적인 공정을 완료했다. 4월 12일까지 이어진 품질확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이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송출한다. 계룡 건설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방송국 사업인 EBS 디지털 통합사옥.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들여 시공한 방송국인 만큼 앞으로 EBS에서 송출될 방송 프로그램들이 기대된다.

또한, 무사고로 공정을 마친 점도 눈에 띈다. EBS 디지털 통합사옥 현장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감시단 3명을 현장에 배치해 수시로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안전감시단의 지적 사항을 전적으로 따르며 전 직원이 사고 예방에 신경 쓴 덕에 무사고 현장을 만들 수 있었다. 이상민 소장은 가족 같은 현장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많다.

“EBS 디지털 통합사옥은 계룡건설에서 처음 맡은 사업이라 공사를 진행하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 모두가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줘 공기 내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책임감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픽미 픽미 픽미업!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와 음악을 추천했습니다.
어떤 영화와 음악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최지혜 사원 / 영화 <건축학 개론>

날씨 때문인지 여름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기 좋다는 느낌이 있어요. 첫사랑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건축학 개론>을 추천합니다. 풋풋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김지훈 사원 /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여름이 배경이에요. 장마에 주인공인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요.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면도 해바라기가 풍성한 한여름 풍경이에요. 결말이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나네요.



이현준 과장

저는 ‘여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진달래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웃음) 술은 잘 못 마시는데 이상하게 봄에 담은 진달래주를 이맘때쯤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목 과장 / 노래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

5년 전 아내와 함께 여수에 놀러가 여수밤바다를 봤는데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밤바다에 비친 아련한 불빛을 봤던 게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여름 하면 이 노래가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박규선 과장 / 영화 <명량>

2014년도 여름에 <명량>이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첫 아이가 생겼어요. 소중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래서인지 여름 하면 <명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강로 대리 / 노래 SES <달리기>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요. 기숙사에 SES 팬이 많았던 건지 여름만 되면 이 노래를 많이 틀어줬어요. 그래서인지 여름 하면 <달리기>가 생각나네요.

입주민의 시각으로 만들었습니다

KR산업 가운리슈빌S

지난 4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초입 가운차구의 가운리슈빌S가 입주민을 맞이했다. 근처 마트와 상가 사이에서 유난히 밝은 분위기로 눈길을 끄는 가운리슈빌S는 입지 환경, 내부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입주민에게 최고의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KR산업은 2015년 8월 가운리슈빌S 착공에 들어가 지난 4월 20일 준공을 마쳤다. 98.3%라는 성공적인 분양률을 기록했고 지난 4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공사명 가운리슈빌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지 위치 남양주시 가운동 668-2

대지 면적 1,950,400㎡

연면적 지상 9,748,6025㎡ / 지하 6,325,4215㎡ / 합계 16,074,0240㎡

건축 면적 1,239,0592㎡

규모 지하 4층, 지상 10층

주차 대수 총 219대(자주식), 법정 211대

입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가운리슈빌S는 가운지구 내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자랑한다. 남양주IC와 도농역, 구리역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며, 2022년에는 수도권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면서 서울 강남권까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km 이내에 마트, 백화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한양대병원 등이 위치하며 남양주 시청(제2청사), 남양주 경찰서, 법원 등 행정타운과도 인접해 있어 생활 면에서도 최고의 환경을 자랑한다.

가운리슈빌S는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이며 전용 면적 기준 20㎡ A타입 184실, 20㎡ B타입 102실, 42㎡ 10실 등 총 296실로 구성된다. 20㎡ 원룸과 42㎡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 B타입은 복층 형태다. 원룸을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입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오피스텔 내에서도 입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1층이 상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입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의 동선을 분리했다. 엘리베이터도 두 대를 설치해 입주민이 상가 이용객과 마주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계식 주차가 아닌 자주식 주차 방식으로 주차장을 설계해 입주민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민 이외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RF카드 주차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한다.



◀ 복층 형태의 20㎡ 원룸 B타입

◀ 20㎡ 원룸 A타입

▼ 42㎡ 투룸



최고의 전문가들이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오피스텔 공사는 도심지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진행되는 만큼, 직원 개개인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가운데리슈빌S 현장에는 KR산업 내에서 오피스텔 건설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배치돼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공사에는 ISP공법이라는 혁신적인 가시설 공법을 활용했다. ISP공법은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이다. 박성익 소장은 “주어진 공사 기간에 맞추어 안전하고 튼튼한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ISP공법을 활용했다.”라고 설명한다. ISP공법은 기존 재래식 가시설 공법에 비해 비용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다. 또한, 파괴의 전조가 뚜렷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운데리슈빌S는 현장 직원들과 KR산업 본사의 노력으로 준공과 분양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입주 시작 전, 지난 4월 1일과 2일에는 사전 입주자 점검을 실시했는데, 입주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면적보다 넓어 보이는 실내 구성과 탁 트인 조망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곳곳에 많은 오피스텔이 분양되며 입주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다양한 오피스텔이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도 KR산업의 가운데리슈빌S가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오피스텔 내에서 직접 생활하는 입주민의 입장이 되어 공사를 진행한 데 있다. 입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보금자리 가운데리슈빌S가 오피스텔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주변 환경 · 안전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 박성익 소장

가운리슈빌S는 ‘리슈빌’이라는 명품 브랜드로 인해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며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직원들은 리슈빌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오피스텔 공사는 도심지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주변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공까지 현장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했습니다.

또한, 도심지 오피스텔 공사는 민원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저희 현장은 소음이나 진동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주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특히 도심지 공사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아침 조회 실시는 물론이고 작업자들의 안전 장비 착용 등 작은 것에서부터 안전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준공까지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기초 공사부터 준공까지 현장 직원 개개인이 연속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봄에 준공을 해야 해, 동절기 공사가 필수적이었는데, 이 시기에 팀워크를 발휘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직원 모두가 ‘내 집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의 입장이 되어 마감까지 세심하게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준공 때까지 고생해 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본사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어 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KR산업 전체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가운리슈빌S에서 입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



“깨끗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우리가 관리합니다”

서울외곽도로관리소



현장명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일상유지 및 제설작업 용역
위치 경기도 양주시(일산IC~퇴계원IC)

용역 규모 총연장 L=36.3km
교량 55개소(L=9km)
터널 6개소(L=12km)
영업소 7개소(불암산, 벌내, 송추, 양주, 통일로, 고양, 호원영업소)
IC램프 7개소(퇴계원, 벌내, 의정부, 송추, 통일로, 고양, 호원)
발주처 서울고속도로(주)

바뀌는 계절을 미리 준비하는 곳

왕복 8차선, 총 연장 127.5km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 일산에서 퇴계원, 판교를 거쳐 다시 일산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도시순환 고속도로다. 수도권이 팽창하며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에 착공해 2007년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KR산업은 현재 일산IC에서 퇴계원IC까지 총 연장 36.3km를 관리한다.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 구간의 도로 및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풍수해 관련 긴급 복구 작업, 동절기 제설 작업, 차량 정비 및 장비 유지 관리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는 보통 계절의 변화에 따라 1년의 계획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을 진행한다. 그해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작업이 이루어진다. 제설작업이 끝나면 봄철 해빙기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이후에는 여름 우기철을 대비해 현장 점검을 한다. 그리고 다시 추계 점검에 들어간다.



이 중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작업은 제설작업이다. 겨울철 눈에 대한 대비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작업을 진행한다. 평상시에는 현장에 직원 30명이 투입되는데, 제설 작업 기간에는 36명이 투입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작업 계획을 세우지만, 강수량·강우량 등에 따라 대처가 달라져야 하므로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예측하는 게 필수적이다. 특히 여름 우기철 작업은 사후에 진행되는 것이 많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많은 비에 의해 법면이 유실되고 노면이 파이는 경우에는 응급 복구를 실시하여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많은 이의 출퇴근길을 지킨다

평상시에 진행되는 일상작업은 주로 도로 청소와 장비, 시설물 점검으로 이루어진다. 비오는 날과 주말을 제외한 날에 노면 청소차로 도로를 청소한다. 장비 점검도 평상시에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운영하는 장비가 50대가 넘기 때문에, 평소에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 파악해 정비한다.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유지관리를 실시하지만, 고속도로 위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현장 사무실은 24시간 운영된다. 사무실에는 거의 전 노선의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가 항상 가동된다. 교통사고, 차량화재 사고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CCTV로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돌발상황에는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므로 노선 특성에 관한 이해, 사고 상황 파악,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작업할 때는 작업 차량과 안전관리 차량 두 대가 짝을

이루어 나간다. 작업 차량이 작업을 진행하면 안전관리 차량은 그 뒤에서 운전자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2차 사고를 방지한다. 이동과 정지 시에 작업 차량과 안전관리 차량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기에 직원들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내 다른 팀과의 의사소통도 필요하다. 고속도로 위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발견한 팀이 담당 팀에 연락을 취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인근 지역과 서울을 빠르게 연결한다. 특히 서울 인근 지역에서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다. 누군가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오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KR 산업 직원들의 노력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그 중심에 KR 산업이 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 임현정 소장

저는 2008년 3월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유지관리 현장에 와서, 1년 8개월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현장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작업하는 만큼, 현장 직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작업하는 사람 본인의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료가 제2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안전을 살피며 작업해야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최소한 두세 명 이상이 팀을 이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챙기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위에서는 돌발상황이 자주 발생하기에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의 연속이기에 힘이 들다가도 이용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면 보람도 느끼고 힘든 것도 잊게 됩니다.

저희 KR산업은 고속도로 유지관리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멘토, 멘티 든든한 버팀목

KR산업 경영기획팀
정지원 주임, 정민주 사원

Mentor



Mentee



수원에서 태어나 자랐고 법학을 전공한 정씨 성을 가진 두 사람이 KR산업 경영기획팀에서 만났다. 2014년 1월에 입사한 정지원 주임, 올해 1월에 입사한 정민주 사원이다. 정민주 사원이 경영기획팀에 배치되기 전, 정지원 주임은 "너랑 똑같은 애 들어온다."라는 소문 같은 이야기 들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지원 주임과 정민주 사원은 닮아 있었다. 같은 팀에서 일하며 멘토, 멘티로 맺어진 두 사람은 하루하루 서로 닮은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다.

KR산업에서 만난 좋은 사람

경영기획팀은 말 그대로 KR산업 내의 경영기획을 책임지는 곳이다. 회사 전체 운영의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립하는 일 등을 진행한다. 팀 내에서 정지원 주임과 정민주 사원은 법무 담당이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진행되는 소송이 있으면 관련 사항을 세심히 파악해 변호사와 협의하고 재판에도 참석한다. 정지원 주임과 정민주 사원 모두 법학을 전공해 법무 경력은 길지 않지만 법에 관련된 지식만큼은 부족함이 없다.

수원에서 태어나 자라고 법학을 전공했다는 점만으로도 둘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학교 졸업 이후 외국 생활 경험이 있다는 것도 같다. 정지원 주임은 1년 정도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했고 정민주 사원도 아일랜드에서 1년 정도 언어도 배우고 짬짬이 유럽 여행도 했다. 그렇게 외국 생활을 했던 두 사람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 취업 준비에 열중한 끝에 얻은 직장이 KR산업이다.

“전공도 살릴 수 있고 무엇보다 사내 분위기가 좋았어

요. 팀원들 성격이 다 좋고 그래서인지 화합이 잘 되는 편이에요.”

정지원 주임이 KR산업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가족 같은 사내 분위기다. 회사에 오랜 시간 머무는 만큼,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었다. 정민주 사원도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마음에 들었다고 말한다.

“제가 입사한 시점이, 한창 회사가 신사업에 도전하고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때였어요. 그런 분위기가 제 성격과도 맞았고요. 사수인 정 주임은 물론이고 좋은 선배들도 만났어요. 사람들이 사수 어떠냐고 물어보면, 정말 좋다고 말해요. 정 주임이 하나부터 열까지 업무를 잘 알려 줍니다.”

업무에 있어서 정지원 주임이 정민주 사원에게 강조하는 건 적시성과 소통이다. 법무라는 게 그렇다. 정해진 기한이 있는 만큼 스케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팀의 업무를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어서, 소통이 중요하다.



형제 같은, 친구 같은 멘토와 멘티

정지원 주임과 정민주 사원은 KR산업 내에서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도 멘토와 멘티로 선정돼 관련 활동을 진행했다. 멘토 멘티 활동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함께한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지원 주임이 정민주 사원에게 일방적으로 알려 주는 입장이지만, 그 외의 면에서는 서로 잘 통하는 친구 같기도 하다. 나이도 비슷해 같은 시기에 학창 시절을 보내며 같은 동네에서 놀며 자랐다.

사무실에서 나와 잠깐 시간을 낸 곳도 수원이다. 정지원 주임은 수원지방방법원이 바로 근처에 있는 아주대 앞을 만남의 장소로 택했다. 아주대가 모교인 정 주임은 이 근처라면 잘 꿰고 있지만, 식당 선택은 정민주 사원의 말에 따랐다.

차 한 잔씩을 마시고 이동한 곳은 근처 닭갈비 집이다. 평소보다 여유 시간을 두고 하는 식사인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다. 주말은 어떻게 보낼 건지, 여행을 가는지, 누구와 함께하는지 등등. 매일 거의 함께하지만, 이야깃거리는 끊임이 없다.

점심 식사를 한 아주대 삼거리에서 수원지방방법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가 걸린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엔 바쁘게 다니느라 못 보고 지나쳤던 꽃들 앞에서 사진도 찍고 등나무 의자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도 보냈다.

또 평소라면 하지 못했을 이야기도 나왔다. 회사 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선배와 후배로, 형과 동생으로, 때로는 친구로 서로를 응원하겠다는 두 사람이다.

“회사에서 업무를 맡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죠. 각 분야의 업무를 파악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성격이에요. 실수하면 좌절하기보다는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_ 정지원 주임

“회사 내에서 제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동안 신입사원으로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모든 일엔 처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멘토로서 배우기만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일도 도와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_정민주 사원 ☺





언제나 행복할 거라는 믿음

계룡건설 상품개발부 오정민 차장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계룡건설 상품개발부 오정민 차장 가족이 나들이에 나섰다. 목적지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국립중앙과학관이다. 오정민 차장은 네 살 딸 하윤이의 손을 잡고, 아내 강한나 씨는 일곱 살 아들 하준이의 손을 잡고 걷는다. 들뜬 아이들의 빠른 발걸음에 맞춰 오정민 차장, 강한나 씨의 걸음도 빨라진다. 작은 것 하나에도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는 게 마냥 행복한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의 인연, 가족을 만든다

가족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생물탐구관이다. 철골유리로 된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하준이 하운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닌다. 몇 번 와 본 곳이지만, 평소엔 잘 볼 수 없던 식물들을 보는 건 언제나 특별한 경험이다.

생물탐구관 앞에는 공룡 모형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공룡 앞에서 사진을 찍자는 말에 하운이는 “나 공룡 무서워.” 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얘기한다. 그 얘기에 하준이는 “나는 안 무서운데.”라고 답한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오정민 차장, 강한나 씨는 웃음을 터뜨린다.



오정민 차장은 현재 계룡건설 상품개발부 소속이다. 아파트 기획부터 설계, 인테리어, 모델하우스 제작 등도 진행한다. 건축을 전공한 오정민 차장은 제대 이후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것을 계기로 계룡건설에 공채로 입사했다. 2001년 12월 입사 이래 지금까지 상품개발부 소속으로 일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아내 강한나 씨와는 2009년 봄에 만났다. 이성에게 관심이 없던 오정민 차장이, 교회에서 만난 강한나 씨에게 강하게 끌린 것은 운명이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에게는 첫 눈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오정민 차장과 강한나 씨가 친해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오정민 차장의 고백에 강한나 씨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오정민 차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둘은 만난 지 10개월 만인, 2010년 9월에 결혼했다. 강한나 씨는 오정민 차장이 프로포즈 하며 건넨 카드를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손수 만든 카드로 프로포즈 받았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가 그려져 있고, 색깔마다 의미를 풀어서 결혼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우아하게 살게 하겠다.’라는 것만 빼고 모든 약속이 지켜지고 있어요. 인생이 기니까, 우아하게 살게 해 주겠단 약속도 지켜지겠죠?(웃음)”

행복하고 따뜻한 가족

믿음 속에서 백년가약을 맺은 둘에게 2011년 만이 하준이가 찾아왔다. 그리고 2014년에는 둘째 하운이가 태어났다. 밝고 장난기 많은 성격의 둘은 서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투닥거리며 지낸다.

말썹꾸러기처럼 보이는 하준이는 엄마, 아빠 생각도 많이 하고 동생도 잘 챙기는 속이 깊은 맏이다. 오정민 차장에게 “아빠 힘들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엄마에게 혼났을 때면 “엄마가



많이 힘든가 봐. 엄마가 나를 혼내도 나는 엄마를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윤이도 착하고 애교가 많은 딸이다. 다섯 살이 되면서 자기주장도 분명해지고 오빠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배우는 똑순이다.

오정민 차장은 아이들에게 마냥 자상한 아빠다. 엄마에게 혼난 아이들을 달래주는 것도 오정민 차장의 몫이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유독 아빠를 잘 따른다. 강한나 씨는 아이들에게 굳기반장 역할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준이, 하윤이는 잠 잘 때면 엄마를 찾는다.

강한나 씨는 한 어학원에서 교사들을 관리하며 학부모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평일에 아이들은 외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지낸다. 그래서 오정민 차장과 강한나 씨는 주말이면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하며 시간을 보내려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윤이가 이유식을 해서 외출하기가 쉽지 않아, 오정민 차장과 하준이 둘이 실내 놀이터나 사우나를 다닌 게 전부였다. 멀리 가는 여행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올해 들어 하윤이와 강한나 씨도 함께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게 됐다.

공룡 모형 앞에서 시간을 보낸 가족은 <몽골 대초원의 동물> 특별전이 열리는 창 의나래관을 찾았다. 특별전에서는 몽골자연사박물관 소장 전시품을 중심으로 눈표범, 회색늑대, 말코슴바닥사슴 등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생

생한 박제 표본을 직접 볼 수 있고 3D로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퀴즈도 풀 수 있다.

하준이, 하윤이는 한동안 다양한 동물의 박제 모형에 눈을 떼지 못하다가, 3D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 독수리 소리를 들어 보고, 독수리를 잡은 것처럼 사진도 찍어 본다. 신이 나서 돌아다니는 하준이와 달리, 아직 아빠 품이 더 좋은 하윤이는 아빠에게 안겨 멀찍이 지켜본다. “무서워.” 하윤이의 한마디에 오정민 차장은 웃으며 하윤이를 더 꼭 안아준다.

오정민 차장에게 가족의 행복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부부가 되어 이룬 가정에 웃음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부모 역할이 중요함을 알기에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두 사람, 오정민 차장과 강한나 씨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 줘요.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기를 그보다는 좀 더 지혜롭기를 또 그보다는 좀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예요. 무엇보다 제가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 오정민 차장

“내년에 하준이가 초등학교가 돼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까 고민 중이에요. 아이들이 제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화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네요.” - 강한나 씨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득

인삼랜드(상) 휴게소

인삼랜드(상) 휴게소는 우수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난 2년 연속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최한 국민평가 조사에서 전국 1위 휴게소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휴게소를 사용하는 국민이 직접 평가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만족도 조사는 총 6개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고객이 모든 문항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을 선택해야만 휴게소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만큼 휴게소 이용객이 모든 서비스에서 만족했다는 뜻이다.





최고의 서비스로, 최대의 만족을

국민평가와 서비스 모니터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다. 휴게소의 첫 이미지는 직원들의 표정과 서비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삼랜드(상) 휴게소는 매일 아침 조회에서 인사 교육을 실시한다. 월 1~2회 정도 집합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에서는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방법과 인사 자세 교육, 응대 표정 관리, 불만 고객 응대 요령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꼼꼼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이용객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 내 우수사원을 뽑아 포상하기도 한다.

휴게소 내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직원이 수시로 휴게소 내·외부 돌며 노후한 시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노후한 시설이 발견되면 바로 보수작업을 진행한다.

이용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더욱 특별히 신경 쓴다. 수시로 화장실 청결상태와 이용객에게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작년에는 한국도로공사 수탁 사업을 통해 화장실 전면을 리모델링해 이용객이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벽면에 개수대가 있는 일반 휴게소와 달리 화장실 입구에 원형 개수대를 설치해 화장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고속버스 환승 휴게소라는 특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삼랜드(상) 휴게소는 서울·경기 지역과 영·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환승 휴게소다. 교통의 중심지라는 장점을 살려 휴게소 최초로 비즈니스 센터를 무료로 대여해 이용객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12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삼랜드(상) 휴게소에서 놓쳐선 안 될 특급서비스

인삼랜드(상) 휴게소는 고속버스 환승을 기다리는 이용객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더욱 편리하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 휴대폰 무료충전 및 보조배터리 대여

충전유목민은 이제 그만! 휴대폰 배터리에 빨간 표시등이 켜졌다면 휴게소 중앙에 자리한 종합안내소로 향하자. 무료로 보조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둘, 건강 편의 시설 무료 이용

(안경세척, 휴대폰 살균소독, 배드민턴 대여)

인삼랜드(상) 휴게소는 이용객의 건강도 똑똑하게 지켜준다. 다양한 청결 서비스는 물론, 장거리 이동으로 온몸이 찌뿌둥한 이용객을 위해 배드민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안내소에서 라켓과 공을 대여해 휴게소 실외에 마련된 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버스 환승 대기 시간 동안 잠시 몸을 움직이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셋, 우편 택배 서비스 제공

휴게소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면, 걱정하지 말고 우편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자. 인삼랜드(상) 휴게소에서는 분실물을 집으로 배송해주는 우편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승하는 동안 불필요한 짐 등을 택배로 보낼 수도 있다.

넷, Wake up 서비스

졸음운전은 사고의 지름길이다. 잠이 쏟아진다면 인삼랜드(상) 휴게소에서 잠시 잠을 청하자. 인삼랜드(상) 휴게소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Wake up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어컨과 히터 사용량이 높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면 호흡곤란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잠시 차에서 눈을 붙이고 싶은 운전자라면 종합안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며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을 알리면 된다. 운전자가 원하는 시간에 직원이 손님을 깨워준다.

다섯, Car Call서비스 제공

버스를 환승하기 위해 맞은편에 위치한 인삼랜드(하) 휴게소로 이동해야 한다면 Car Call 서비스를 이용하자. 이용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삼랜드(상) 휴게소가 셔틀자동차를 운영한다. 단 한 명이라도 Car Call 서비스는 제공된다.

★ 또 다른 특별한 서비스 ★

전기차 무료 충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삼랜드(상) 휴게소는 전기차 무료 충전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기차를 사용하는 이용객이라면 알뜰하게 휴게소를 이용해 보자.

인삼랜드(상) 휴게소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인삼 갈비탕

인삼랜드(상)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는 역시 인삼 갈비탕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휴게소 음식 맛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메뉴답다. 몸이 허하다 느낄 때 한 그릇 푹푹 비우면 속이 든든해지는 요리다.

인삼갈비탕 한 그릇을 내기 위해서는 오랜 정성과 손길이 필요하다. 갈비탕의 생명인 육수를 낼 때 월계수, 통후추, 통마늘, 생강 등을 넣어 고기 잡내를 없앤다. 육수가 우러나면 갈비탕 위에 인삼을 올려 은은한 인삼 향이 퍼지게 한다. 인삼 향과 맛이 강하지 않아 인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여기에 후식으로 나오는 요구르트를 마시면, 갈비탕 전문음식점 못지않은 한 끼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인삼튀김과 인삼즙

인삼튀김은 금산의 명물인 인삼을 독특하게 즐기는 방법이다. 인삼 한 뿌리를 통째로 곱게 튀김옷을 입혀 튀긴다. 이용객에게 정직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 인삼을 튀길 때도 정성을 다한다. 인삼 뿌리 곁이 살도록 인삼을 흔들며 튀김옷을 입히고 튀긴다. 인삼 갈비탕 못지않게 인기가 좋아 이용객이 많은 명절에는 인삼튀김만을 판매하는 가판대를 설치할 정도다.

인삼 특유의 강한 향과 씹쓸한 맛을 꺼리는 사람에게는 인삼즙을 추천한다. 아이들에게도 사랑받는 메뉴다. 인삼즙은 인삼 하나를 통째로 우유에 넣고 갈아 만든다. 인삼이 우유를 만나 씹쓸한 맛이 사라지고 달콤한 맛이 더해졌다. 게다가 아삭아삭한 인삼 알갱이가 씹혀 식감도 살아있다.



인삼랜드(상) 휴게소 방이현 소장의 편지~

인삼랜드(상) 휴게소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그 역량을 토대로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휴게소는 필요한 요소를 판매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넘어 이용객의 여정에 가치를 더하는 휴게소가 필요합니다. 인삼랜드(상) 휴게소는 이런 새로운 휴게소의 모습을 제시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인삼랜드(상) 휴게소를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주세요. 단순히 식사나 필요한 물품만을 구매하는 곳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휴게소, 오래 머물고 싶은 휴게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듭나는 인삼랜드(상) 휴게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똑같은 티셔츠는 이제 그만 패션 아일랜드에서 센스 있는 커플룩 고르기

오랜만에 연인과 떠나는 여행. 커플룩을 고르기로 결정했는데, 취향이 달라 갈등이 생긴다.

똑같은 티셔츠를 사서 입자니 조금 민망하기도 하다. 식상한 커플룩은 이제 그만!

트렌디한 커플이라면 패션 아일랜드에서 각자의 취향을 살리면서도 함께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커플룩을 선택해 보자.

계룡산업 죽암휴게소 박재현 주임과 예비신부 양승현 씨가 촬영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다른 스타일이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깔끔한 정장 차림을 좋아하는 남성과 걸리쉬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같은 듯 다른 스타일링으로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다. 각자의 취향에 맞는 비슷한 색 계열의 아이템을 선택해 재치 있는 커플룩을 완성한다. 남성이 흰 남방과 남색 면바지로 베이직한 스타일을 연출했다면, 여성은 흰 티셔츠와 미

니스커트, 혹은 깔끔한 원피스로 걸리쉬한 매력을 살린다.

이와 반대로 여성이 카멜 색 재킷과 검은 티셔츠를 선택했다면, 남성이 검은 남방을 선택한다.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와 단디한 남성의 이미지가 합해져 근사한 레스토랑에서도 문제없는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어디에나 쉽게 매치할 수 있는 깔끔한 흰 남방 / 49,800원 클라이드

신축성이 좋아 활동이 편한 남색 바지 / 39,800원 클라이드

더운 여름,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는 원피스 / 39,800원 클라이드

[소개 제품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아이템이 조화를 이룬다

비슷한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 남성이 회색 계열의 남방을 선택했다면, 여성이 흰색 라운드 티셔츠에 회색 계열의 바지를 매치해 보자. 비슷한 색을 가진 아이템을 활용하면 함께 있을 때 더욱 빛을 내는 매력 있는 커플룩을 연출할 수 있다.

여성이 정장 차림을 즐겨 입는다면, 서로 다른 색의 재킷을 코디하는 것도 좋다. 여성이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흰색 계열의 정장을 입었다면, 남성이 흰색 티셔츠 위에 남색 재킷을 입어 보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를 위해 재킷은 리넨 소재를 선택해 시원함을 더하는 것이 좋다.

시원한 소재로 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흰 셔츠 / 19,900원 폴햄

흰색과 회색이 섞여 단조로워 보이지 않는 남방 / 39,900원 폴햄

허리를 밴딩 처리해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숏 팬츠 / 29,900원 폴햄

[소개 제품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매치하기 쉬운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데님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패션계의 스테디셀러다. 유행을 타지 않고 어디에나 매치할 수 있어 손이 가는 아이템이다. 굵기가 다른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선택해 스포티한 커플룩을 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굵기, 색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내기에 색다른 커플룩을 연출할 수 있다.

더 스포티한 느낌을 원한다면 데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데님 소재의 아이템도 스트라이프처럼 디자인, 색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남성이 밝은 데님 소재의 바지를, 여성이 어두운 소재의 청치마를 코디해 주말 스트릿 패션을 뽐내 보자.

시원해 보이는 굵은 스트라이프 티셔츠 / 29,000원 버커루
허리를 밴딩 처리 해 도심 속 활동복으로 활용 가능한 바지 / 89,000원 버커루
어디에서 쉽게 매치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 29,000원 버커루
독특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눈길을 끄는 청바지 / 179,000원 버커루
[소개 제품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패션 아일랜드 새소식

01

하나, 6월 입점 매장 소식

1층 / 디스커버리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가 입점합니다. 활동성은 높이고 스타일은 깔끔한 아웃도어를 만들어보세요.

3층 / 올리브영 코스메틱 멀티숍 올리브영이 입점합니다. 다양한 뷰티 아이템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세요.

02

둘, 물뽕대전은 계속된다

패션 아일랜드 최대 할인 이벤트, 물뽕대전이 6월에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패션 아일랜드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www.fisland.co.kr/naver



HOPE
DREAM

문화가 있는 공간
생활이 있는 공간

자연스럽게 뉴욕에 스며드는 법

뉴욕여행





대다수 사람은 뉴욕이라고 하면, 뉴욕시의 5개 구 중 하나인 맨해튼을 연상한다. 맨해튼은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기 편하고, 많은 관광지를 걸어서 다닐 수 있다. <걷기의 역사>의 저자 레베카 솔닛은 도시에서의 걷기를 러닝머신과 비교한다. 러닝머신은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지만, 도시에서의 경험적 관계를 빼앗는다고 말한다. 그런 면에서 뉴욕은 자동차를 빌리기 어려운 여행객도 충분히 걷고, 느낄 수 있는 도시다.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

맨해튼은 허드슨 강과 이스트 강에 둘러싸였다. 뉴욕시의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작으나 시의 중심부이자 세계의 상업, 금융, 문화의 중심지를 이룬다.

뉴욕이라는 도시를 떠올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이다. 한 손에 횃불을 쥐고 하늘 높이 치켜든 거대한 여신상은 뉴욕항으로 들어가는 허드슨 강 입구의 리버티 섬에 세워졌다. 뉴욕항은 맨해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서양 항로의 서쪽 끝에 있어 유럽과의 연결 통로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유여신상의 작가 프레데릭 오귀스트 바르톨디(Frédéric Auguste Bartholdi)는 프랑스 동부, 알자스 지방의 도시인 콜마르에서 태어났다. 콜마르의 부잣집에서 1834년 태어난 바르톨디는 1875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자유여신상을 만들었다. 여신상의 머리카락 한 올부터 흘러내리는 옷자락, 섬세한 발가락까지 정성을 기울였다. 잠시 프랑스에 서 있던 자유여신상은 1885년 분해되어 배를 타고 미국에 이송되었다.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것이다.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지만, 통상 자유여신상으로 알려졌다.



자유여신상을 감상하는 법

1. 60분 자유여신상 크루즈를 타고 배에서 감상

1시간 이내에 자유여신상과 브루클린 브리지까지 투어가 가능하다. 자유여신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기에 좋는데, 한 배에 150명 정도 탑승해 대기 시간이 짧다.

2. 배터리파크에서 리버티 섬까지 운행하는 페리를 타고 섬에 내려 감상

리버티 섬에 내려 자유여신상 주변을 360도 돌아볼 수 있다. 앨리스 아일랜드에 들러 이민 박물관에 방문할 수 있다.

화폭에 담긴 도시를 읽다

자유의 여신상을 본 후엔 맨해튼의 중심가로 가 보자. 맨해튼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도 하다.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도시에 밝게 불을 켜 한 식당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사람을 그린다. 커다랗고 텅 빈 공간, 자연광과 인공의 대조로 도시의 풍경은 더욱 쓸쓸해 보인다.

에드워드 호퍼는 54년 동안 거주했던 그리니치 빌리지의 한 칸이 식당에서 이 그림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그리니치 빌리지는 브로드웨이 근처 그리니치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웨스턴 하우스턴 거리에서 웨스트 14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맨해튼 남부에 있다. 주로 예술가 거주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에드워드 호퍼는 늘 뉴욕 곳곳을 다니며 스케치하고, 작업실로 돌아와 아내와 인물상의 자세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그의 작품은 일상의 단면을 보여 주면서, 미국 도시민들의 삶을 특징지었던 상실감과 소외감이 자연스럽게 묻어나 많은 미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자연스럽게 스며들다

맨해튼 중심에 있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도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에드워드 호퍼의 <철길 옆의 집>은 개관할 당시 가장 처음으로 매입한 작품이다. 뉴욕 현대

미술관은 1929년 11월 7일 개관 후, 1939년 현재 맨해튼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맨 처음 설계자는 필립 굿윈과 에드워드 스톤으로 이후 세 번에 걸쳐 공간이 재탄생했으며, 현재의 모습은 일본인 건축가 요시오 타니구치가 설계한 모습이다.

1997년 뉴욕 현대미술관의 재건축 설계자로 일본의 건축가 요시오 타니구치가 발표되자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건축가에 세계 건축계가 주목했다. 내로라하는 유명 건축가의 설계를 제치고 그의 설계도가 선택된 데는 주변과의 조화가 큰 몫을 했다. 1939년 필립 굿윈과 에드워드 스톤이 디자인한 원래의 모습과 1968년 필립 존슨이 디자인한 조각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전체 미술관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마당을 중시하는 동양의 건축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거리의 풍경에서 사라진 것이 특징이다.

“돈을 많이 주면 멋진 미술관을 짓겠고, 돈을 정말 많이 주면 아예 건물이 없어지게 하겠다.”

요시오 타니구치가 새로운 뉴욕 현대미술관을 기획하며 했던 말이다. 그의 말처럼 뉴욕 현대미술관은 튀는 건물로 바깥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독특한 내부 구조로 관람객과 작품의 교류를 넓혔다. 또한, 맨해튼 53가를 그대로 미술관 내부와 이어놓은 듯이 설계했다. 이는 건축이 도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 에드워드 호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 뉴욕 현대미술관 (MoMA)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안질환을 예방하자



PHOTO TOON은 직원 여러분이 직접 출연해 직장 생활의 애환과 에피소드를 사보제작팀에서 재미있게 각색해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겪은 에피소드와 경험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전달해 주세요. 에피소드로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호 포토존에는 계룡산업 관리부 장식원 사원, 식품사업부 노희성 사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계속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
충혈도 자주 되고.

눈이 ??
왜 그래?

알레르기성
결막염이구나.

척!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황사, 미세먼지가 많은 환절기에 쉽게 걸리는 안질환이야.



외출 후에는 바로 몸을 씻고, 수시로 인공눈물로 안구를 세척해 주는 게 좋아.

이때는 멋보다 건강을 위해 렌즈사용을 줄이고 안경을 써야 해.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안구에 미세먼지가 닿는 것을 줄이는 게 좋아.



선글라스는 더운 여름 자외선 차단에도 좋아. 눈이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각막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



눈이 가려울 때는 비비지 말고 차가운 수건으로 마사지를 하도록 해.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안질환을 예방하세요.



봄날은 이미 지났지만, 봄의 추억은 여름날까지 계속되겠지요.
우리에게 설렘과 사랑 추억을 안겨 준 봄날의 기억을 소개합니다. 🌈



KR산업 서울외곽전기시설 박경진 사원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해남 외할머니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5학년이 되어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네요.



계룡건설 환경생태부 조시영 사원

엄마가 시골에 놀러가셨을 때
산에서 봄나물 캐시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향긋한 봄 나물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계룡건설 환경생태부 이종원 주임

CG 같은 서울 도심과 어우러진
도심 속 자연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계룡건설 자금부 김현식 사원

계룡에 찾아온 봄입니다.



KR산업 수원 인계리슈빌 박재용 과장

기와 담벼락 앞으로 살며시 봄이 왔습니다.



KR산업 김해울하아파트 민용기 과장

봄 하면 역시 꽃이죠.

특히 벚꽃은 '드디어 봄이 왔어'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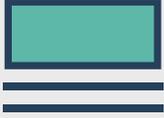


계룡산업 덕유산 휴게소 전상찬 과장

싱그러운 봄에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어머니 환갑이었던 2015년 4월
뒷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NEWS



NEWS

계룡건설, 교통문화운동 후원



지난 3월 30일,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은 먼저가수 교통문화운동 시민모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다.

먼저가수 교통문화운동은 지난 2015년부터 대전시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계룡건설은 먼저가수 교통문화운동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기부해 함께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계룡건설은 감사패를 받았다.

성과보고회는 먼저가수 교통문화운동의 활동내역을 짚어보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였다. 계룡건설도 앞으로 먼저가수 교통문화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후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계룡그룹 임원 워크숍 실시



지난 4월 7일과 8일 계룡그룹이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고 그룹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승구 회장과 이승찬 사장을 비롯해 계룡건설, KR산업, 계룡산업, KR유통, KR스포츠 등 전 계열사 임원이 함께했다.

워크숍 첫날인 7일, 임원들은 작년 12월부터 계룡그룹에 편입된 구니C.C를 찾아 구니C.C의 발전가능성과 운영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직접 그라운드를 둘러보며 KR스포츠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후 임원들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그룹의 발전을 논의했다.

다음날인 8일에는 남해 보리암을 찾아 발전기원제를 지냈다. 임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수주 확대 및 회사 발전, 무사고 안전, 매출 증대를 위해 기도를 올렸으며, 그룹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정진하자는 뜻을 모았다.





계룡건설, 2017년 멘토링 결연식 실시



지난 5월 19일 계룡건설은 본사 강당에서 2017년 멘토링 결연식을 진행했다. 계룡건설은 선배가 신입직원에게 회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회사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멘토링 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신입직원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회사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멘토링에는 멘토 22명과 멘티 42명 총 64명이 참여했으며, 멘토링 활동은 오는 11월까지 총 7개월간 진행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지역을 중심으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고 멘토링대이를 지정해, 바쁜 현장 업무 속에서도 참여자들이 편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멘토링 결연식을 준비한 총무부 정승흠 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선배와 신입직원이 친분을 쌓고 친한 형, 동생 같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입직원들이 잘 적응해 계룡건설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계룡건설, 제46회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격려



계룡건설은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충청남도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대전·충남 선수단을 격려했다.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은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충청남도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해 지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지난 5월 23일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대전시 선수단 출정식에서도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계룡건설은 매년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지역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계룡건설, 국립한밭대학교에 유림장학금 1억 원 기탁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은 지난 5월 26일, 더오페라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한밭대학교 개교90주년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유림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유림장학금은 지난 5월 15일 서거한 계룡건설故이인구 명예회장의 유지(장학사업)를 받들고자 고인의 이호를 딴 장학금이다.

故이인구 명예회장은 한밭대학교 유성 덕명캠퍼스 이전 사업은 물론, 유림플 조성 기증, 명예 공학박사학위 수여 등 평소 한밭대학교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유림장학금은 한밭대학교에서 수년간에 걸쳐 학업 우수자,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기타 특별히 배려할 자 등을 엄정하게 선발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계룡장학재단,

2017년 2/4분기(제98회)장학금 27,033,600원 지급



계룡장학재단은 지난 5월 31일 64명의 고등학생에게 2017년도 2/4분기 장학금 27,033,600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2017년도 전체 장학금 187,134,400원 중 일반장학금 제 2회분으로 온라인으로 송금 지급되며, 1992년 12월 재단 설립 이래 이번 회까지 지급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4,118명 장학금 5,450,048,201원에 달한다.

KR산업

상주~영천 민자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KR산업이 덕송~내각도로 수주에 이어 상주~영천 민자도로의 우선협상자에 선정되었다. 상주~영천간 민자도로는 총연장 93.9km 왕복 4차로에 영업소 10개소, 진출입로 10개소, 터널 6개소로 구성되며, KR산업은 2022년 6월 27일까지 5년간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시설물 점검 등의 통합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KR산업은 도로, 공항, 터널, 영업소, ITS, 안전순찰 등 국내 토탈 매니지먼트 리더로서, 금번 국내 민자도로 최장노선인 상주~영천도로 수주로 향후 민자도로 통합운영 발주에 대비할수 있는 실적 마련과 더 나아가 해외 유지관리 분야 진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KR산업, 명사초빙 교양강좌 및 직급별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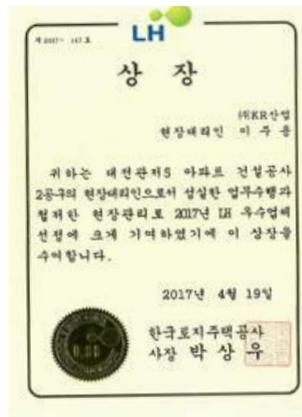
KR산업은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직급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장직급은 리더육성 교육과정을, 주임 이하 직원은 핵심인재양성 관련 온라인 과정을 교육받게 되며, 평생교육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명사초빙 교양강좌를 오는 6월 15일 본사에서 실시한다.

KR산업, 영동선 횡성·구정휴게소 리모델링 추진



KR산업 유통본부에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영동고속도로 횡성 및 구정휴게소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캐노피연장과 안내소 증축, 폴딩도어 설치, 싸인물 재정비 등을 통해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R산업, 대전관저아파트 LH 시공우수사례 선정



KR산업이 시공한 대전관저아파트가 시공우수사례로 선정되어 LH로부터 상장과 우수시공패를 수여받았다. 이에 따라 KR산업은 LH공사로부터 PQ가점 2점과 중심제 가점 0.5점, 최저가 공사 0.2점의 PQ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



계룡건설 KR산업 계룡산업 KR유통 계룡장학재단 KR스포츠